

2. 대법원장 임명식사

- 추후 전문 제공 예정

3. 신규임용 법관

- 임용심사 개요

- 대법원은 이번 임용심사에서 법원 업무에 적응하는 데 필요한 최소기간만 배석 판사로 근무하고 그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단독판사로 근무할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 임용을 위하여 법조일원화 정착 후 적용될 원칙적 임용 방식을 마련하여 진행하였음
- 구체적으로 서류심사와 실무능력평가를 강화하여 지원자의 자질과 실무능력을 철저히 평가하고, 바람직한 역량평가 방안 수립을 위하여 발주한 정책연구용역 결과 등을 반영한 인성역량평가 면접을 새로이 도입하여 법관으로서 요구되는 기본적 품성을 면밀히 검증하는 등 임용절차를 강화하였음

- 임용심사 경과

- 2012. 8. 27. 『2012년도 하반기 법관 임용 계획』 공고에 따라 변호사, 검사 등 법조경력자 총 95명이 지원하였음
- 대법원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지원자들이 다년간의 법률사무종사 경력을 통해 쌓은 실무능력 및 법조인으로서의 인품과 자질, 도덕성 등을 보다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검증하였고, 외부위원이 포함된 법관인사위원회는 위와 같은 검증 결과 등 다양한 자료를 토대로 법관적격 여부를 심의하였으며, 이러한 법관인사위원회의 심의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24명을 법관으로 임용하게 된 것임
- 이번에 임용된 법조경력자 출신은 24명으로 2012. 12. 10.부터 사법연수원에서 약 11주간의 신임법관 연수교육을 마치고 내년 2월 중 정기인사에 맞추어 각급 법원에 배치될 예정임